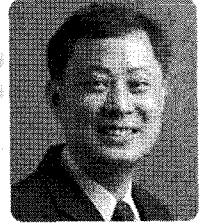


[특집: 구제역 종식 이후 축종별 사료산업 전망]

한육우 사료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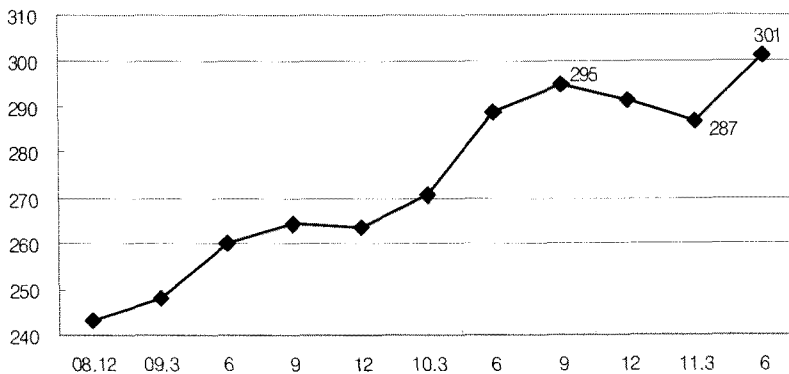
박응렬
(㈜삼양사 축우PM(부장))

작년 11월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이렇게 국가적인 재앙으로 확산 될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였으며, 향후 국내의 축산업에 매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2011년 4월 현재 공식적인 피해액만 3조 원을 웃돌고 있으며, 이번 구제역으로 축우

의 공식적인 살처분 두수는 올 2월 기준으로 151,000두로 집계되고 있다. 그 중 한육우는 11만 4천여 마리로 축우의 75%를 차지하여 꾸준히 증가하던 한육우의 사육두수가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올 3월까지 8만여두가 감소하였다(그림1).

<그림1> 한육우 사육두수 추이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또한 이러한 가축매물의 직접적인 피해 이외의 농장에서도 구제역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송아지의 사산, 유산등의 번식장애가

보고되고 있다.

사료회사의 경우는 안동 농협 사료공장을 비롯한 일부 사료공장이 일시적 생산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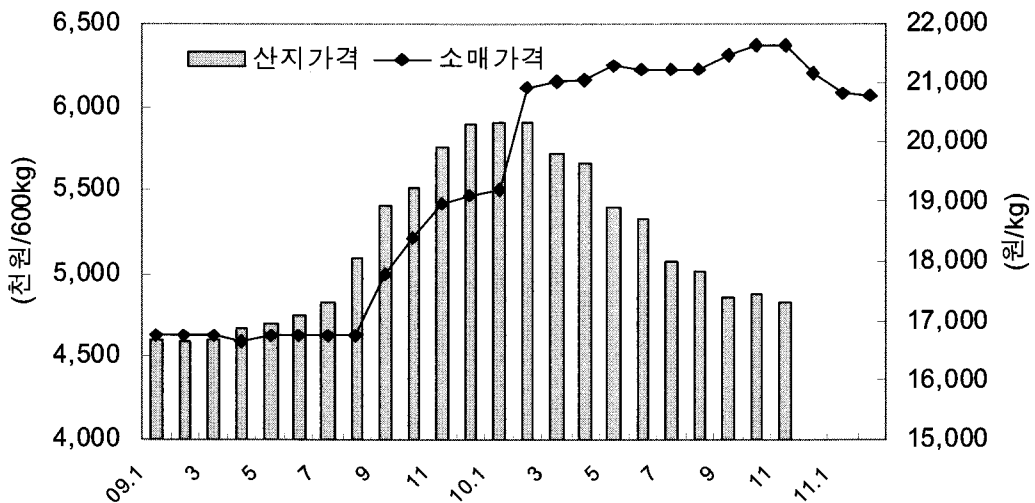
과 생산량 감소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동 제한으로 인한 송아지 경매시장 및 그리고 도축장들의 일시적인 가동중지 그리고 수의사, 컷설턴트, 인공수정사 등의 활동 위축으로 인한 간접적인 축산업계의 피해 속출하였으며, 특히 인공수정사, 수의사들의 활동 저하는 올 가을의 송아지 생산감소 등의 영향들이 예상된다.

또한 양돈은 전체두수의 30%가 넘는 무려 332만두가 살처분 되어 이로 인한 해당 양돈

산업 뿐만 아니라 향후 돼지고기 부족으로 인해 기타 축종 및 식료품의 소비에도 매우 큰 영향들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의 최대의 피해자는 현재 비육우사업을 하고 있는 양축가이다. 한우의 산지가격은 구제역 이전부터 한우두수 과다와 쇠고기수입량 증대로 인해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한육우의 산지가격은 더욱 하락하였고, 당분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 전망된다(그림 2).

<그림 2> 한우산지가격 및 소매가격 추이



※ 자료: 한국육류유통 수출입협회

현재에는 비육우농장의 손익분기점은 지육 kg당 14,000원정도로 현 시세가 손익분기 이하이며, 이러한 현상은 올 한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표1).

앞부분에서 언급 했듯이 이러한 산지가격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비육우 사육두수의 과잉”과 “수입쇠고기의 수입증가”이다.

2010년 쇠고기 수입량은 2009년 대비 4만 7천톤 (24%) 증가하였으며, 올해 1~2월 또한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하여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육우 산업은 장기간의 침체가 예상된다.



<표1> 한우 가격 전망

한 우		3~5월	
		2010년	2011년
큰 소 (1등급)	산 지 (600kg)	634만원	450~485만원
	도매 (지육kg)	17,041원	12,500~13,600원
수송아지		246만원	190~210만원

* 큰 소 산지가격은 1등급 경락가격(원/지육kg)에 지육율(59.7%)을 고려하여 생체 600kg으로 환산함.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그러나 (그림 2)의 자료를 참고하면 한우의 산지가격은 작년 1월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소매가격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우리 또한 일반 식육식당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쉽게 감지 할 수 있으며, 한우고기란 아직 일반 소비자가 먹기에는 역시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즉 국내산 쇠고기의 유통·판매과정에서의 예전보다 거품이 증가하였음이 예상되며, 정부 차원에서 국내산 쇠고기 유통의 합리화를 통한 “한우의 제값 받기 정책”의 꾸준한 시행이 요구된다.

비육우 양축가들에 대한 “적자 감소 대책” 즉 “비육우의 수익성 향상 방법”으로 다음의 3가지를 소개 하겠다.

그 첫번째 방법이 “판매가격 상승을 위한 고급육 생산의 증대”이고 두번째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저가 사료사용” 그리고 세번째가 “사료 구매경쟁력 향상”을 위한 단체결성이다.

우선 고급육 생산 부분을 보면, 육질등급 1등급이 향상되었을 때 동일한 사료를 급여하고도 평균 70만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고급육에 대한 사양관리

기술보급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만약 한우의 1+등급 출현율이 70%를 넘으면 지금의 낮은 판매가격에서도 충분히 비육우사업은 경쟁력이 있다.

두번째로 저가사료의 사용인데, 저가사료는 영양스펙이나 기호성 부분에서 고급육 사료 대비 성적이 떨어진다. 비육우는 양계, 양돈과는 달리 송아지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사육 주기가 타 축종에 비해 매우 길다. 육우의 경우 17개월, 한우의 경우 24개월 후에 그 성적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당장의 생산비 감소가 2년 후의 수익감소로의 귀결이 예상되며, 결국에는 농장 수익성 감소의 악순환 연속이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재 일본에서 유행하는 “고급육 단기비육 기술”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전부터 국내산 비육우의 수익성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으며,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송아지의 분만 육성 그리고 비육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에 의하여 출하월령을 2개월 앞당기면서(사료비, 관리비 절감), 출하체중과 출하 육질성을 동일하게 하는 기술(송아지 조기이유,

전기포식형 비육)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우와 유전형질이 비슷한 한우 또한 본 방법의 접목이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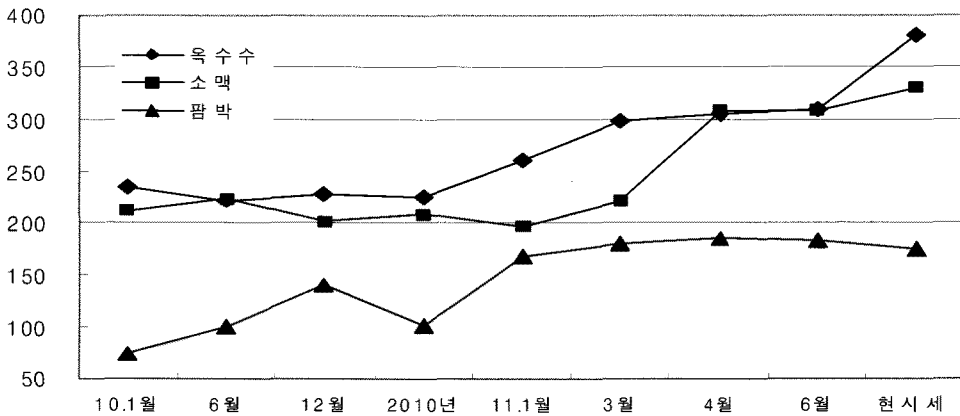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생산비 절감 방법인 양축가들이 동일사료를 단체로 공개입찰을 통해 구매 함으로써 사료의 구매단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농가의 생산비(사료비)절감을 위한 효과가 기대된다.

단, 한가지 주의 할 점은 너무 사료 가격에

집착하다 보면, 이 또한 사료 품질의 저하 및 성적저하가 우려되므로, 사료의 품질과 해당 사료회사의 고급육 생산관련 서비스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축우 대군단체에 대한 치열한 경쟁, 양돈사료 시장의 감소, 그리고 곡물가격의 급격한 상승(그림3)과 이에 동반한 사료가격의 인상지연으로 인해 최근 사료 전문회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그림3> 주요 곡물가격 변동



※ 자료: 한국사료협회

이러한 수익성 악화의 대응책으로 각 사료회사에서는 “경제성 원료의 사용”, “구매선의 다변화”, “운반비 절감을 위한 지역한정 판매” 그리고 “지역별 축종 전문공장 통합운영” 등의 움직임이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부차원에서의 권역별 사료공장 운영의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로서는 사료공장이 항구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고, 비육우 양축농가는 경북 강원, 충청, 호남내륙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사료의 원활한 공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이라는 큰 시련을 경험한 양축가들은 농장차원에서 인접지역의 사료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